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차순근 법인장님

KC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2시간 가량 비행거리에 있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KC코트렐 중국법인의 차순근 입니다. KC뉴스레터를 통하여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춘(長春)이란 도시이름은 영원한 푸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는 여름, 겨울 두 계절만 있습니다. 여름에는 영상 30도를, 겨울에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날씨 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군요, 제가 이 곳에 온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춘에 처음 온 날을 기억합니다. 작고 낡은 공항, 지저분한 거리, 칙칙한 복장에서 정체된 도로까지.. 또한, 이곳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중국문화와 중국 사람들을 알아갈수록 이곳에 익숙해져 가며 도시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춘도 신공항건설, 깨끗해진 거리, 더 많은 차들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우리 장춘법인은 직원 수도 기존 23명에서 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지 생각할 때입니다.

올해 7월말, 저는 KC코트렐 중국법인의 법인장을 맡게 되었으며,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할 것이며 꾸준하고 안전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KC코트렐 중국법인의 직원 뿐만 아니라 KC그룹사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KC그룹이 서로 도와가며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KC코트렐 중국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C Cottrell(China) Co., Ltd 차순근 / 법인장

Tel: +86-431-85877503 Email: sungeun@kc-cottrell.com



실행능력 훈련



휴식시간-탁구게임



휴식시간-당구게임

2010 KC 10대 뉴스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KC그린홀딩스(주) 출범

2010년 1월 1일부로 국내 최초의 녹색산업 전문지주회사인 KC그린홀딩스가 KC코트렐과의 인적 분할을 통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KC Network사들에 대한 경영지원과 신규사업 추진 등이 한층 더 전문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KC Network는 KC그린홀딩스(주)와 KC코트렐(주)가 분리되면서 2개의 상장회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 KC Network의 새로운 가족들

① 종합환경기획(주)

녹색 산업의 새로운 분야인 환경컨설팅업의 개척을 위해 종합환경기획(주)를 창립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고재영 사장님은 오랫동안 환경 정책관련 분야에 종사하셨던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KC Network의 ES Division의 총괄 CEO를 겸임하시게 되어 KC의 환경서비스업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5월).

② NOL-TEC Systems, Inc.

미국 소재 conveying and material handling equipment 엔지니어링 회사인 NOL-TEC Systems 가 KC그린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KC는 본격적인 북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8월)

③ KC INVALL GREEN ENERGY Co.,Ltd.

그 간 태양광 엔지니어링 및 인버터 사업을 영위하던 솔라플러스가 세계적인 풍력엔지니어링사인 스페인 INVALL을 새주주로 맞이하여 풍력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월)

3 전(全)사원이 함께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가절감 프로젝트

KC코트렐의 CC20! / 안성유리공업의 High-5

전사 임직원이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CC20!, High-5 구호는 주욱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프로젝트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4 KC APC Division의 제4차 3개년 중기계획 수립

KC코트렐의 제3차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지주회사 출범 후 처음으로 APC사업군이 모두 모여 제4차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Work-shop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5 KC코트렐 기술력의 인증

POSCO World Best World First 제품개발 협약 (2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대상기업 선정 (5월)

KOTRA보증브랜드 인증 사업자 선정(5월)

-KC코트렐의 기술력과 위상에 대한 평가였으며 KC코트렐의 설비가 세계일류상품이 되는 인증샷이었습니다.

6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

안성유리공업의 무재해 3배수(900일)달성!

한미산업의 무재해 2배수(640일) 달성

-용해로와 소각로를 운영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무재해 3 또는 2배수를 달성한 것은 교육을 통한 전 직원의 안전의식 재고로 이룩한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KC환경서비스 창립10주년

KC의 환경서비스업이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그 이후 KC환경개발, KC한미산업, KC정림환경, 베올리아ES&KC에코싸이클 그리고 종합환경기획으로 이어지며 환경서비스업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 APC Division의 제4차 3개년 중기계획 수립



▷ KC코트렐 기술력의 인증



▷ 안성유리, KC한미산업 무재해 2~3배수 달성



▷ KCES 창립 10주년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8 올해의 기념비적인 수주!

- ① KC코트렐의 보령화력 6호기, 최초의 배연탈질촉매재제조의 수주입니다. (1월)
- ② Lodge Cottrell India의 Shriram EPC.,Ltd 타르습식집진기 수주, 해외법인 설립 후 자체적인 첫 수주였습니다. (1월)
- ③ KC코트렐의 일본SPCO에 Ferro-cokes Demo plant 수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CO₂ 저감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일본 4개 제철회사가 참여하는 Ferro-cokes Demo plant에 KC코트렐이 수주를 성공하였습니다. (2월)
- ④ KC코트렐의 하동화력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회수공정” 설치, CCS를 적용한 첫 수주 건입니다. (2월)
- ⑤ KC코트렐의 POSCO FeMn 공장 대기환경설비 수주, 하나의 공장 안에 설치되는 환경설비를 상담부터 엔지니어링까지 모든 설비를 최적의 조건으로 안착시키며 총체적으로 제작을 맡은 Turn-key프로젝트입니다. (7월)
- ⑥ KC삼양정수의 필리핀 Petron 및 Taganito 프로젝트 수주, 해외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외국업체가 직접 발주하는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였습니다.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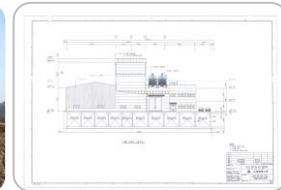
▷ 타르습식집진기,
Ferro-cokes
Demo plant

▷ 이산화탄소 회수공정,
KC삼양정수 설비



9 설비 증설을 통하여 한 단계 도약!

- ① KH환경개발은 올해 제4-2공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 ② KC한미산업의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을 최신공법으로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폐수수탁 매출의 4배에 가까운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③ 클레스트라하우저만은 중국 타이창 신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중국내수 시장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생산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구미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시장에 보다 탄력적인 제품 공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실적 방면으로도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뜻 깊은 해가 되었습니다.
- ④ 베올리아ES&KC에코사이클은 RPF(폐플라스틱고형연료)의 증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약2배 규모의 자동화 설비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 1.2.3.4 (시계방향)

10 APC Division 해외 법인장 취임

KC Cottrell China/Lodge Cottrell UK/KC Cottrell Vietnam/Lodge Cottrell India의 해외법인장들이 새로 취임하면서 해외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안성유리공업]

1. '행복지수 1등 기업'에 선정

고용노동부는 청년층과 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 해소의 일환으로 및 대기업 외의 중견·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나 성장성, 복지환경 등의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근무환경과 복지여건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우리시대 행복지수 1등 기업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발행한 '우리시대 행복지수 1등 기업들'은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연봉이 2000만 원을 상회하며 교육투자와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25곳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안성유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 별첨하겠습니다.

'우리시대 행복지수 1등 기업들' 책자는 중진공 사이트(www.HIT500.or.kr)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2-769-6715)로 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무재해 3배수 달성 우수 기업

<월간 안전세계> 잡지 2010년 11월호 특집으로 안성유리공업의 "부재해 3배수 달성 우수기업"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성유리직원이라면 안전은 이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으로서 매월 실시하는 안전 캠페인 및 교육과 매일 아침 체조 실시, 그리고 구호제창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내용은 별첨하겠습니다.

안성유리공업 경영기획팀 홍세라(srhong@asglass.co.kr)



'우리시대 행복지수 1등 기업들' 내용 중



월간 '안전세계' 기사 중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 코트렐] 제37회 창립 기념일 행사

지난 11월26일 KC코트렐 지하강당에서 KC코트렐과 KC그린홀딩스의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제37회 KC코트렐 창립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KC코트렐 창립기념일은 11월 27일이며 토요일인 관계로 하루 전인 26일에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는 사장님/노조위원장님의 인사말, 장기근속자/우수사원 표창, 다과 파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창장 수상자는 장기근속자 고덕명 상무 외 20여명, 우수사원 이원희 외 5명이었습니다.

간단한 다과 및 맥주와 함께한 제37회 창립기념일을 전 직원이 축하하였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창립기념일 행사,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표창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코트렐] 포스코 검정자율관리 인증업체
2년 연속 선정

지난 11월 KC코트렐이 2010년 포스코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로 연속2회 선정 되었습니다.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란 설비공급 시 검정을 면제하는 우수 공급사를 의미합니다.
검정 자율관리 인증 공급사는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인증품목에 대해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자율적인 품질 및 제작관리를 통해 포스코에 설비를 공급합니다. 윤리규범 위반이 나중 대결함 이상의 품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기간 내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회사는 자동으로 인증기간이 연장됩니다.
KC코트렐은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어 작년에 이어 2년째 검정 자율관리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KC코트렐 포항사무소 김규백 (gyuback@kc-cottrell.com)



▷POSCO 검정 자율관리 공급사 인증서

[ES Division] 2011년도 사업계획발표회의

지난 12/3(금) KC 환경사업부문의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회의가 여수 KCES에서 14:0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KC그린홀딩스에서 고재영사장님과 이기환 상무님, KCES의 이재영 부사장님, KC한미의 이강욱 부사장님, KC정림의 이석구 상무님, KC Ecocycle의 박정철 사장님 그리고 각 회사의 관리 및 영업, 운영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사의 2010년도 예상경영 실적, 2011년도 사업계획 및 cashflow, 주요투자계획 등의 발표이었으며 그에 대한 경영진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고재영사장님께서서는 그 동안 환경사업부문은 꾸준한 이익실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향후로는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운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KC환경서비스 이정식 팀장 (jslee@kc-enviro.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정유소식] 정유社 숨어있는 진주 '유허유사업'

3분기 SK루브리컨츠·에스오일, 영업이익률 20%이상 유허유사업
가격, 연초대비 20% 이상 급등

올해들어 유허유사업 수요 확대와 함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허유사업이 정유사들의 숨어있는 알짜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허유사업 수출가격(FOB Korea 기준)은 올해 초 배럴당 89.75달러에 불과했으나 10월들어 125달러로 연초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세계 경기회복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유허유사업 및 완제품 생산업체들의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SK에너지의 유허유사업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는 3분기 매출액 5천844억원에 영업이익이 1천12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9.3%에 달했다. 1분기 매출액 4천103억원, 영업이익 505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2.3%로 출발했던 SK루브리컨츠 경영실적이 2분기 매출액 4천763억원, 영업이익 59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6.1%, 18.6% 각각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12.6%를 기록했다. 3분기에도 전분기대비 매출액이 22.7%, 영업이익이 88.3% 각각 확대되는 등 매분기마다 놀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에스오일의 유허유사업 역시 매출액 4천809억원, 영업이익 1천18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4.7%에 달했다. 올해들어 분기별 매출액은 1분기 2천975억원에서 2분기 3천431억원으로 15.3% 성장했지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40.2%의 매출액이 늘었다. 영업이익도 2분기에 전분기대비 101.6%나 증가했으며, 3분기에도 전분기보다 57.7%나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분기 12.5%에서 2분기 21.9%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유허유사업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유업체들의 유허유사업이 탄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우선 유허유사업 부문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에스오일은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2번째 유허유사업 생산능력인 하루 2만9천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오일은 그룹 I, II, III 유허유사업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유를 원료로 한 완제품 생산은 지난 2008년 토탈과 5대5 합작으로 에스오일-토탈유허유(STLC)를 설립해 이뤄지고 있다.

SK루브리컨츠는 조금 못미치는 2만6천배럴 규모로 양사의 생산능력은 세계 수준에 올라있다. SK루브리컨츠는 전체 매출 중 유허유사업 부문이 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완제품 매출은 전체의 24.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고급 유허유 완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허유사업 그룹 III의 경우 SK루브리컨츠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SK루브리컨츠는 그룹 III 기유만을 생산하고 있어 세계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에스오일은 그룹 III 시장 점유율이 25%에 이르고 있다. SK루브리컨츠보다 점유율이 절반에 불과하지만, 전품목의 기유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룹 III에서도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자동차용 유허유 시장은 약 90%가 그룹 I과 II를 원료로 만들어진 일반 유허유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룹 III는 나머지 10%인 신차 시장 등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성능·고연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허유사업 시장이 그룹 III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SK루브리컨츠, 해외시장 공략 박차

유허유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K루브리컨츠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스페인 람솔社와 함께, 스페인 카프타헤나에 그룹 III 유허유사업 공장을 오는 2013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스페인 공장 건설 추진은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는 시장에 생산기지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SK루브리컨츠는 지난 5월 중국 톈진(天津)에 일일 생산능력 2천400배럴 규모의 유허유사업 완제품 공장을 착공하고, 내년 12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SK루브리컨츠는 현재 완제품 생산능력이 임가공을 포함해 총 7천600배럴에 이르고 있는 데, 톈진 완제품 공장이 완공되면 1만배럴로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SK루브리컨츠는 2015년께 중국내에서만 국내 판매량과 비슷한 연간 79만8천배럴의 유허유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SK루브리컨츠,
유허유사업 완제품
공장 내부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GS칼텍스, 한국타이어에 이어 삼성물산과 손잡고 중국 공략

GS칼텍스는 2007년말부터 윤활기유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이지만,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그룹Ⅱ 제품만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 그룹Ⅲ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타이어 및 삼성물산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한국타이어와 중국의 자동차용 윤활유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중국의 윤활유 및 타이어시장 분석과 함께 양사간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삼성물산과 산업체육 윤활유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중국 내 5개 영업법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철강, 섬유, 화학 등 현지 거래업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산업체 윤활유 공급이 매우 용이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윤활유시장은 총 12조원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윤활유시장이다. 이중 자동차 윤활유가 64%, 산업체 윤활유가 34%, 기타 제품이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GS칼텍스 정유영업본부장 나완배 사장은 "인도현지법인 설립, 한국타이어와의 제휴, 그리고 삼성물산과의 제휴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현재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윤활유 완제품의 수출비중을 향후 5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쓰오일, 온산공장 전경

에쓰오일, 전체 생산량 66% 20여 개국에 수출

에쓰오일의 경우 3분기들어 고급 윤활유 제조에 사용되는 그룹Ⅲ 제품 판매량이 2분기 대비 64%나 늘었다. 3분기 그룹Ⅲ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 제품 판매량은 일일 평균 3만7천996배럴로 전분기보다 32% 증가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점진적 경기회복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으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프리미엄 자동차 판매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그룹Ⅲ 윤활기유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 4분기 전망도 무척 밝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1976년 설립 당시부터 고급 윤활기유 분야에 과감히 투자, 해마다 생산물량의 절반 이상을 전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점진적 경기회복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으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프리미엄 자동차 판매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그룹Ⅲ 윤활기유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 4분기 전망도 무척 밝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1976년 설립 당시부터 고급 윤활기유 분야에 과감히 투자, 해마다 생산물량의 절반 이상을 전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이머징 마켓 뿐만 아니라 고급 윤활기유 수요가 많은 미국, 벨기에 일본 등 선진국시장에도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6%에 달하는 730만배럴을 수출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30여 년 동안의 윤활기유 생산 경험을 활용하고 일관된 품질의 원유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품질을 갖춘 다양한 유종의 고급 윤활기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고품질, 고성능의 제품은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품질 규격이 까다로운 미국과 유럽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며 세계 윤활기유 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중국, 인도 등 아시아시장에서는 윤활기유 최대 공급업체로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일본의 윤활유 제조업체와 고급윤활기유 제품에 관한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에쓰오일과 토탈의 합작회사인 윤활유 생산업체인 STLC는 올해 6월 울산 온산윤활공장 확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STLC의 윤활유 생산규모는 일일 1천300배럴에서 2천500배럴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제철소식] 글로벌 이슈 - 일본의 해외 상공정 투자전략

일본, 현지업체와 제휴... 상공정 투자 가속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극도의 내수 부진과 최근의 엔고로 수출경쟁력 저하라는 이중의 딜레마에 빠진 일본 고로사들의 해외전략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무네오카 신일철 사장은 "2015년에서 2020년에는 조강 생산량(현재 4000만 톤 체제)을 5000만 톤에서 6000만 톤 체제로 늘린다"고 밝혔으며, 바다 JFE스틸 사장은 "국내 설비증강은 조강 3300만 톤 체제로 일단락하고 해외에서 1000만~1500만 톤급 제철소를 건설하고 싶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일본 고로사들이 해외 상공정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자회사 우지미나스를 통해 이미 해외 상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신일철은 브라질에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우지미나스의 이파칭가 제철소 인근 산타나도파라이조에 2012년까지 연산 500만 톤 규모의 고로 2기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 제철소가 완공되면 우지미나스의 조강 생산량은 1440만 톤 규모로 늘어난다.

또한 2010년 10월 1일자로 브라질 제철소 등 해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지미나스 프로젝트반 신설 및 해외 전개 시 기술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술총괄부·기술협력부를 통합한 '기술총괄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향후에는 우지미나스의 쿠바탕 제철소 인근에 3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도 계획 중이다.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 인도에서는 타타스틸과 제휴하여 일관제철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태국에 고로 건설도 검토 중이다. 브라질·인도·태국은 신일철이 구상하고 있는 3대 전략 거점이 된다.

JFE는 2004년 중국 광저우강철과 고로 건설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중국 정부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인도에서 최초의 해외 고로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2010년 7월 인도 JSW에 900억 엔을 투자해 자동차 강판 기술공여, 고로 조업 지원을 내용으로 전략적 제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인도 시장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JSW가 계획하고 있는 2개 제철소(자르칸드·웨스트벵갈) 건설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에는 태국·베트남·필리핀에서의 고로 계획도 있다.

해외 상공정 투자 보수적 → 적극적 자세 전환 신흥시장 제철소 건설 등 투자 전략 구체화 인도 거점으로 세계 철강사들 각축 불가피

일본 철강사의 상공정 전략 및 내용	
신일철	브라질 상공정 가속화 및 브라질·인도·태국 3대 거점화 - 브라질 자회사 우지미나스의 제철소 건설 (타타사도 인근에 500만 톤급 2기 부속제철소 300만 톤/년) - 인도 타타스틸과 제휴해 일관제철소 건설 계획 - 태국 일관제철소 건설
JFE	인도에서 최초 해외 제철소 건설·확대 - 인도에서 2000만 톤급 제철소 건설, 2010년 12월 일관제철소 1기에 개시 (자르칸드·웨스트벵갈) - 태국·베트남·필리핀 일관제철소 건설 검토
스미토모	일관제철소 중심으로 상공정 확대 - 프랑스 발랑세르 제철소(스미토모 44%에 브라질에 고로건설)에 연관한 고로 (연산 100만 톤/년, 부속제철소 50만 톤/년) - 인도 자르칸드·웨스트벵갈에 고로 건설을 함께 계획
고베제강	남방철을 중심으로 개발지역 상공정 확대 - 베트남(호찌민)에 ITmk3로 고로 1기, 남방철 제철소 건설(2010년 말/년) - 인도 NMDC와 남방철 제철소 건설 계획, SAIL과 건설 협의

스미토모는 강정 분야인 강관 사업과 연계된 상공정을 이미 추진해왔다. 2007년 7월 프랑스 발로렉과 합작으로(발로렉 56%, 스미토모 44%) 총 투자비 2000억 엔을 투입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에 고로일관 강관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이 공장은 조강규모 100만 톤인데 무늬목강관(seamless Pipe)생산능력은 60만 톤이다.

또한 스미토모 역시 인도에서 신규 제철소 참여를 노리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07년 12월 인도 부산스틸이 오리사주에 신설하는 일관제철소 건설 및 조업에 관한 기술공여에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 고베제강은 자체기술인 ITmk3 프로세스를 이용해 타사와 차별화된 냉철원 상공정 전략을 펴는 점이 눈에 띈다. ITmk3 프로세스는 고베제강이 15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개발한 신제철법으로, 저품위 철광석과 석탄으로 10분 만에 입자상의 '아이언 너겟'을 생산하는 프로세스이다. 2010년 1월 12일에는 미국 전기로 업체인 스틸 다이내믹스와 공동으로 미네소타주 호이트 레이크에서 처음으로 플랜트를 가동한 바 있다.

2010년 3월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ITmk3 프로세스를 활용한 제철소 투자 승인을 획득하고, 1000억 엔을 투입하여 응에안에 2단계로 240만 톤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8월에는 인도 국영 철강사인 NMDC와 제철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작투자 검토 각서를 교환하였다. 이 제철소의 1기 생산능력은 50만 톤 규모이며 투자액은 200억 엔 수준이다. SAIL과도 합작으로 1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협의 중이다.

상공정 추진에 있어 일본 고로사들의 특징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 주요 업체와 제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 제철소 건설의 공통된 목표시장은 인도로 집약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계획만 많을 뿐 확실하게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철강업체들이 과거의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해 해외 상공정 전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포스코가 제철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는 향후 최대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 성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포스코가 인도를 포함한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를 가속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포스코 신문(11/11, 제843호)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제철소 신설 계획 300만 톤서 450만 톤으로 확대

인도 철강사인 JSW는 서부 벵골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연산능력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신설 계획을 450만 톤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투자금액은 당초 계획보다 6억 7000만 달러 늘어난 27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JSW는 카르나타카 지역 비자야나갈제철소의 연산능력을 68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확장공사는 2011년 4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 포스코 신문(11/18, 제844호)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 선정

KC코트렐·삼우에코 등 6개사

포스코는 최근 2010년도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로 덕지산업·동양특수주강·삼성플렉스·삼우에코·육영전해시스템·KC코트렐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다. 검정 자율관리 인증업체란 설비공급 시 검정을 면제하는 우수 공급사를 의미한다.

검정 자율관리 인증 공급사는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인증품목에 대해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자율적인 품질 및 제작관리를 통해 포스코에 설비를 공급한다. 윤리규범 위반이나 중대 결함 이상의 품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기간 내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회사는 자동으로 인증기간이 연장된다. 덕지산업·삼우에코·육영전해시스템·KC코트렐의 경우 인증기간이 연장됐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400여 개에 달하는 설비 공급사 중 검정 지적률이 0.4% 이하인 우수 공급사를 인증후보로 선정했다. ▷ 포스코 신문(11/25, 제845호)

포스코, 파이넥스 3호기 생산능력 확대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보이는 파이넥스 3호기의 생산능력을 애초 계획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 계획 중인 파이넥스 3호기는 애초 연산 200만톤의 쇳물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경제성 등을 이유로 250만톤 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신제강 공사 중단으로 후속 투자가 늦어지는 포스코는 신제강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파이넥스 3호기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넥스 3호기의 생산능력을 키운 것은 먼저 규모의 생산을 통한 경제성 논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산능력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상용화 설비(2호기) 가동 노하우로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50만톤 규모로 설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중국과 인도에 파이넥스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2호기 규모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 노후 고로에 대해서는 파이넥스로 대체하는 대신 대형화 개보수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철강 신문 (11/24, 제1595호)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원자재 시장

[열연] 시중 열연價 또 떨어져·80만원대 초반

- 열연SSC "매주 1만원씩 하락하는 것 같다"·시중 수요 부진에 유통가 맥뭉침

- 연말 앞두고 재고 조정·매출관리 하락압력 증대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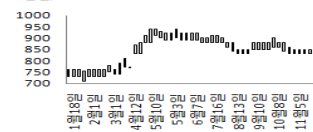
열연강판 시중 유통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시중 열연가격은 저점이 한단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산의 경우 83만원 내외까지 저가품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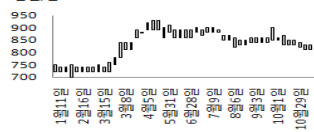
일부에서는 대량물량의 경우 80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현대제철산은 저가품이 81만원수준까지 내려갔다. 일반적으로는 82만원 거래가 주종이다.

11월 중순보다 역시 1~2만원 하락한 상태로 동부제철산은 70만원대 후반이 굳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 유통가격 하락은 수요 부진 지속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연말 매출과 재고조정에 쫓긴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본격화 한 것도 하락의 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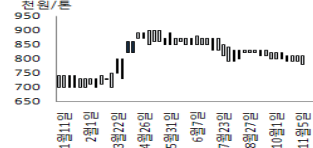
전원/톤 포스코산 열연 유통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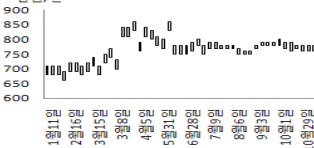
전원/톤 현대제철산 열연 거래가격 추이



전원/톤 동부제철산 열연 거래가격 추이



전원/톤 중국산 열연 거래가격 추이



[냉연] 냉연업계 "적자나 흑자냐" 생존모드 돌입

- 4분기 실적 악화..동부제철, 포스코강판 적자 위기

- 냉연업계 08년 학습효과 "위기기간 최대한 줄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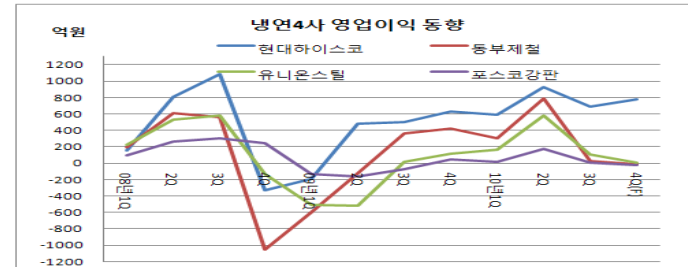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12-03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강판을 판매하는 현대하이스코만이 4% 대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전망이고, 타 냉연사들은 4분기 영업이익률이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직 12월이 남은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동부제철과 포스코강판은 4분기 소폭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유니온스틸은 영업이익률이 0% 대의 뚝뚝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익이 제로이거나 적자를 낼 것으로 우려되는 냉연사들은 현재 생존모드에 돌입한 상태이다.

냉연사 관계자는 "08년 당시 시황악화가 3개 분기 동안 지속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시황악화도 3개 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형강] 올해 형강 명목소비 27.5% 증가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10-19

포스코는 2010년 형강 내수는 2009년의 내수부진에 의한 기저효과로 27.5% 증가하고 2011년 내수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건설경기 회복세 등으로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은 2010년에는 8.7% 증가하나 2011년에는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STS]포스코 STS 12월 가격인하와 향후 전망

- 포스코, 시장과의 가격 현실화 위해 톤당 20만원 인하결정

-유통가격의 추가하락의 우려있지만 1차 코일센터들 일단 가격고수할 것

-스틸데일리 기사 요약 11-30

포스코가 12월 출하분 300계 스테인리스 가격을 인하했다. 300계 스테인리스 인하 폭은 열연 냉연모두 톤당 20만원이다.

포스코는 11월 스테인리스 300계 출하가격을 전월대비 1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00계 스테인리스 열연제품 출하가격은 톤당 380만원(밀에 지 대단중 현금 상차(포항) 기준), 냉연제품은 407만원으로 조정된다.

포스코는 그동안 원료가격 변동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원가압박이 상당히 높았으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격인상을 최소화하였고 금번에도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소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들어 스테인리스 생산업체들은 니켈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압박으로 출하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중국의 타이위안 강철은 한국형 수출가격을 톤당 200달러 인상했고, 대만 밀들도 내수가격을 톤당 160달러를 인상한 바 있다.

최근 니켈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조치 기대로 달러약세가 지속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강세가 예상되고 니켈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스테인리스 시장의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견조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락한 니켈가격에 따라 국내 출하가격을 운영하는 것 보다 시장을 견인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포스코는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11월 400계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환율시장

12월,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달러 1,135 원
~1,170 원 다소 넓은 박스권 흐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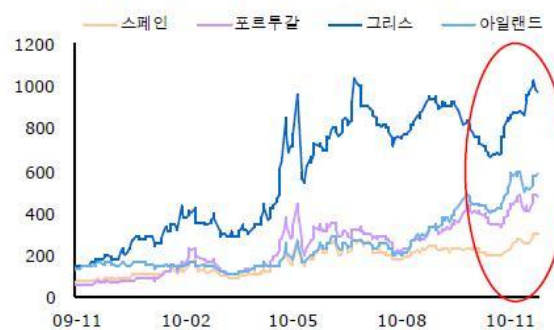


[자료 : 연합뉴스포맥스]

11월 초 이후 달러 지수는 상당히 가파른 반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내용이 시장의 예상과 비슷하였고, QE(양적완화, Quantative Easing)2에 묻혀 드러나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의 재정 불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유로/달러의 급락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 지역의 취약한 재정 상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EU-IMF의 재정안정 메커니즘 마련으로 지난 5월의 재정 위기 사태는 봉합되었으나, 재정 긴축 과정에서의 정치적 잡음과 불안 가중, 경제성장 위축, 그리스 외의 다른 국가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사용 요청 가능성 등을 미루어 보아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다.

최근 재정 취약국의 국가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과 각국의 국채수익률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극에 달했던 지난 5월 수준에 근접했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서울환시 달러/원 환율에도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EU와 IMF가 마련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으로 1차적인 국가부도 위기가 차단된 점은 다르지 않고, 향후 3년간 주요 재정 취약국들의 만기 도래로 차환해야 하는 국채규모는 EFSF보다 크지 않다. 재정 불안이 스페인으로 확산되어 지원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각국의 자금 승인 과정이나 실제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스페인의 경제 규모와 유로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미 그리스 사태를 경험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은 이전에 비해 보다 신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취약국 신용위험 사상 최고수준>



[자료 : Bloomberg]

그러나 내년 한 해에도 재정 취약국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고, 그 중 스페인의 국채 만기 역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우려되는 부분은 금융시장이 자기실현적 예언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0월 후반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신용위험이 뒤늦게 반영되기 시작한 데에는 미국의 QE2 라는 대형재료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에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측면도 크다. 이 같은 신용위험의 상승은 다시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이는 실제 각국이 국채 차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결국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되는 등 단기 불확실성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재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한 재정 이슈는 수면 아래에 잠복된 형태로 남아 우려와 안도를 반복하며 시장의 간헐적인 조정 재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11월 후반 환율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은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된 영향이 크다. 북한 관련 이벤트의 경우 예측가능성이 낮고 돌발 변수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하지만, 그에 뒤따르는 되돌림 역시도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크다. 이 같은 학습효과나 지정학적 위치 상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이번 사태 역시 그 영향력이 점차 소멸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는다. 물론 정전 이래 처음으로 남한 영토에 대한 조준포격이 이루어졌고, 민간피해가 상당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나 미국 등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을 보이고, 화폐 개혁 이후 열악한 경제 상황과 후계 구도 확립 과정 등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北의 추가 도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과거 북한 관련 이벤트와 환시 영향을 점검해 볼 때, 서울 및 국제환시 여건이 불안했을 당시 환율의 상승과 그 되돌림 과정이 상당히 비대칭적이었던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기대와 달러캐리 트레이드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완연하게 형성되었던 2009년 11월의 경우 대청해전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GM 대우 선물환 매도 헤지 청산 가능성이 부각되었던 그 해 5월이나, 유럽 재정 위기가 극에 달했던 올 해 5월에는 북한 관련 이벤트의 환시 영향력이 상당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이는 취약한 투자심리로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려되는 부분은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의 여건이 지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발표 때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유럽 재정 불안이 지속되고 외인 채권 투자 과세 부활 발표에도 추가규제의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北의 추가 도발이 없다는 점을 전제할 때에도 환율은 기존의 레벨을 빠르게 복원하거나, 혹은 기존의 하락추세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유럽 재정 문제의 지속,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단기에 회복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당분간 높은 불확실성 속에 60일선과 12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1135~1170원 중심의 넓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며 높은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월 후반에 가까워올수록 연말 쇼핑시즌의 지출 증가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며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반등을 부추길 지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위험선호 거래가 재차 부각되고 국내 경제의 건조한 펀더멘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며 달러/원 환율은 이전의 상승폭을 되돌리는 흐름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은의 복클로징과 연말 거래량 감소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환율의 하락세가 재개될 경우 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우리선물 2010.11.30 제83호 monthly Futures & Options 12월호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KC가족여러분 안녕
하세요~ Keith
Marsh입니다.

I feel it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toes,
Christmas is all around me and so the feeling grows~ ♪ ♪

영국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합니다!



☆Keith Marsh's family ☆

크리스마스 아침의 첫 일과는 부인과 선물을 교환하는 일입니다. 그 후에 점심식사에 사용할 각종 채소를 다듬고 간단한 아침식사를 합니다. 오전 11시경 두 딸과 가족들이 도착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 하는 동안 어른들은 와인이나 간단한 맥주를 마십니다.



KC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Lodge Cottrell** 에서 33년간 근무한 **Keith Marsh** 라고 합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 가족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아내와 장모님, 두 딸과 사위들, 4명의 손자, 손녀 (9세, 7세, 3세, 1.5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로 시작됩니다. 비록 선물은 아내가 일주일 전에 미리 사다 놓지만 이브에 포장을 시작합니다. 저희 딸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회에서 보냅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온 가족이 모여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주로 오후 1시 30분경 식사를 시작하며, 오전 6시 30분부터 굽기 시작한 7kg짜리 터키를 먹습니다.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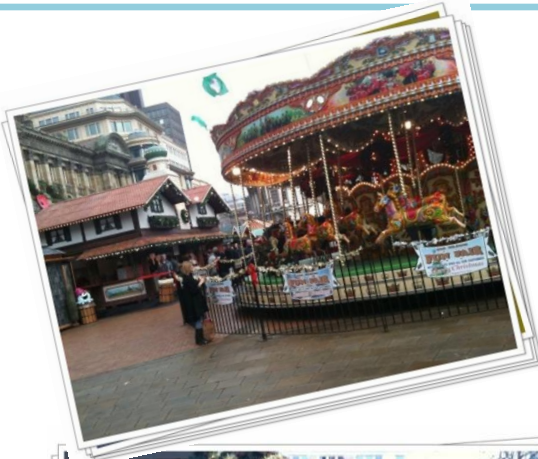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Frankfurter markt in Birmingham

그 후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부인이 준비한 점심식사를 합니다. 터키와 와인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가장의 몫입니다. 식사 후에는 푸딩을 먹습니다. 크리스마스 푸딩은 빵가루, 견과류, 말린 과일 약간의 술로 만들어 지며, White brandy sauce와 함께 먹습니다.

점심식사 후, 아이들은 장난감을 다시 가지고 놀며, 어린 아이들은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여왕의 크리스마스 인사'를 텔레비전으로 감상합니다. 가끔 과음을 한 사람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초저녁, 때때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보내기도 하며, 이는 더 많은 술과 저녁식사, 크리스마스 케익을 먹으며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아이들은 자고 다음날 아침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입니다. 12월 26일, Boxing Day (크리스마스 세일기간)날에는 남자들은 주로 축구경기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 Lodge Cottrell 은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주말에 있는 관계로 12월 24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휴가입니다. 전 직원은 3일 가량의 주어진 휴가를 사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직원이 재충전하여 2011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글이 전통적인 영국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즐거운 성탄절과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odge Cottrell Ltd. Mr.Keith Marsh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2

▶ 퇴직연금제도

고령화, 저출산화가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KC그린홀딩스는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모든 검토과정을 마치고, 다가오는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KC전 관계사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11월호 KC뉴스레터 특집기사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인부양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여, 이에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안정이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직장인들의 약 60%는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의 네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적립퇴직급여채무 증가로 기업의 재정부담 가중·중간정산, 중간퇴직 시 등으로 정년 퇴직 전에 퇴직금 소진 제도적 보완장치 미흡으로 지급 조장성(수급권) 부족 연금형태의 급여 수령 곤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방향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2005.12.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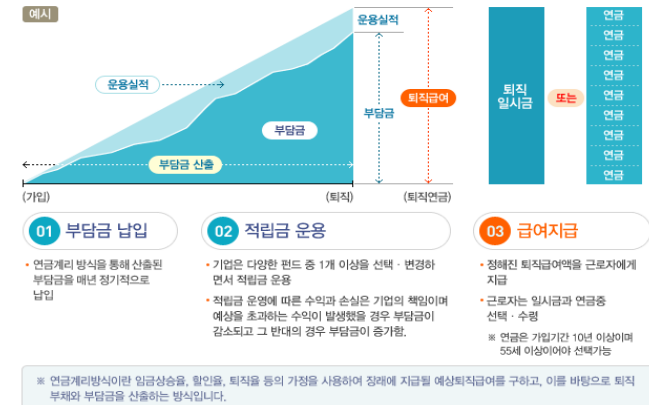
앞으로 모든 기업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이 퇴직연금제도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이 두가지를 '퇴직급여제도'라 함)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은 아래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복수, 또는 단수형태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제도(근속년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와 같습니다. 적립금 운용을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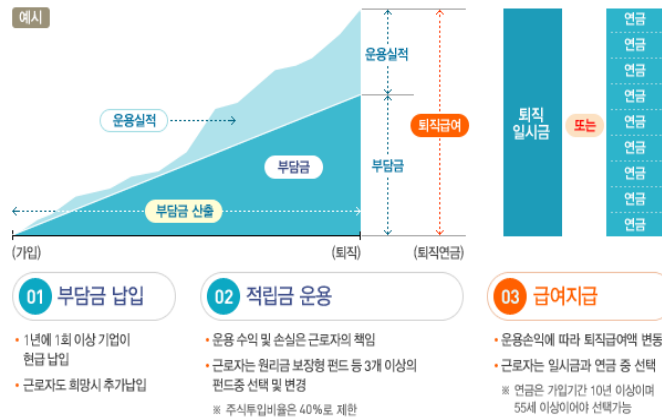
(출처: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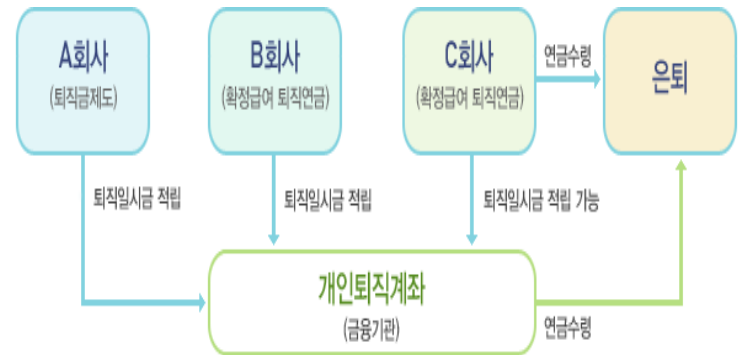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금액을 노사가 선택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계좌로 불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되어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후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그 외 -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란 중간정산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명예퇴직금/위로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한 후 필요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전용 퇴직금관리 계좌입니다.



(출처: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제도와 비교]

구분	법정 퇴직금제도 (기존)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용부담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비용부담수준 (1년기준)	평균임금의 1개월 분 (대략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평균임금의 1개월 분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 습)	퇴직금과 같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급여수준	근속년수*퇴직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	퇴직금과 같음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적립방식	사내적립, 사외적립권장	(부분적)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수급안정성 (기업도산 시 수급 보장)	전액수급공란(최종3년 퇴 직급여만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보전)	수급권 부분보장(사외적립 분+임금채권보장기금 보장 분)	전액보장
근로자에 대한 혜택	퇴직금 수령 시 과세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 이연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 이연
사용자에 대한 혜택	- 사내적립분40%에 한도 손비인정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가능	- 사외적립분(연금부분) 전액 손비인정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가능	- 사외적립분 전액손비 인정 - 임금채권부담금 퇴직금 부분 전액 경감 가능
직장 이동 시 계좌연결가능성	불가능	불가능	가능
적합근로자 (기업)	- 호봉제 임금체계 적용	- 호봉제 임금체계 적용 기업 근로자 - 장기근속 근로자 - 자산운용에 노련한 기업	- 연봉제 적용기업 근로자 - 단기 근속 근로자 - 자산운용에 노련한 근로자

KC그린홀딩스
지원팀 이보람
(boram@
kcgreenholdings.com)

앞으로 KC의 전 관계사는 KC그린홀딩스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KC의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2